

교회 목표

신성한 예배
천국일꾼 양성
민족 복음화
세계 선교
아웃 사랑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시편 18:1)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니라
(빌립보 1:21)

주간 충현

대한예수교 장로회 **충현교회**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665-1 ☎ 02-552-8200 ©2005 충현교회

THE WEEKLY CHOONGHYUN

발행인: 김성관 편집인: 노광현 편집: 양계웅

깨어, 이 말씀을 들으라! (금요일)

국부적으로도 임재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모든 곳에, 그리고 동시에 완전하게 임재하신다. 또한 성경에서는 삼위일체 하나님 각각 세 분이 특별한 장소에 따로 계시도 보여주고 있다. 주께서는 특별한 장소에, 또 경우에 따라서는 특별한 방법으로 자신의 임재하심을 나타내실 수도 있다. 성경은 천당에 있는 하나님의 보좌가 그의 통치의 중심이라는 것을 언급하고 있다. 물론 천당은 하나님 아버지, 그의 아들과 성령님께서 못 천사들과 함께 하시며 구원받은 성도들이 있는 한 장소임에 틀림이 없다(히 12:22-23). "시온 산", "예루살렘"은 우리가 생각하는 장소와는 다른 곳이다. 어찌하였든 이곳은 하나님에 의해 특별히 구별된 장소이다. 지상에 있는 장소와 물체들은 하늘에 있는 것들에 비교하면 그림자와 같다(히 8:1, 5, 히 9:23).

하나님의 보좌는 구약과 신약에서 모두 언급하고 있다(사 6:1). 높이 들린 보좌이다. 이사는 하나님의 보좌를 볼 때에 그 광채로 인해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 된 모습을 극적으로 깨닫는다(사 6:5). 사도 요한도 보좌에 앉으신 이의 모습을 설명한다(계 4:2-3).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치시며 보좌에 계신 하나님을 언급하신다(마 6:9). 다윗은 통치의 중심부인 하늘의 보좌를 언급한다(시 103:19-21).

하나님의 현존하신 영광은 또 하나 그의 특별한 현존하심의 예다. 하나님의 편재하심을 깨달은 솔로몬은 앞으로 건축할 성전에 하나님을 용납할 수 없음을 알았다(왕상 8:27). 하나님께서는 친히 말씀하신다. "주께서 가라사대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로"(왕 7:49). 하나님의 국부적인 임재로 인해서 하나님은 성전의 지성소 안에 거하실 수가 있다. 하나님의 영광이 와서 하나님의 전을 충만하게 채우셨다. 솔로몬이 지은 성전에 여호와와 영광이 임하셨다(대하 7:1-2). 이스라엘 모든 자손은 불이 내리는 것과 여호와와 영광이 성전에 있는 것을 보았다. 이들은 박식 칸 땅에 엎드려 그들의 얼굴을 가렸다. 엎드려 경배하였다. 여호와께 감사하며 찬송하였다. 하나님의 국부적인 임재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이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의 죄로 인하여 떠난다(겔 10:18-19, 11:22-23). 야곱 역시 형을 피하여 도망하던 중, 하나님의 특별한 임재를 체험하였다(창 28:12, 13). 야곱이 고백한다.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창 28:16). "두렵도다 이곳이여 다른 것이 아니다. 이는 하나님의 전이요, 하나님의 문이로다"(창 28:17). 야곱은 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부었다. 그곳 이름을 벧엘이라 하였다.

신약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무소부재하신 분이시지만 특별히 이 땅 위에 국부적으로 나타났었다. 구약에서 미리 예언이 있었다(미 5:2; 눅 2:4, 7). 천사는 찬양한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

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요 1:10-11). 하나님의 아들은 성육신 전에도 부분적으로 나타났었다(단 7:13-14; 눅 12:10). 때로는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로서 국부적으로 나타났었다(창 16:7-13; 출 13:21; 사 13:19-20). 예수께서는 세상에 계시 때에 육신 안에 국한되어 계셨다. 그는 아직도 하늘에서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으로 국한되어 있다. 지금 그는 하나님이지사 사람이신 분으로 위엄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골 3:1). 그분은 하나님의 본체이지만 이 땅에 성육신하시어 오실 때에는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으시고 우리의 죄를 위하여 대속하시기 위하여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셔서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 승천하신 예수님은 그가 재림하실 때에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이지사 사람으로 모두에게 나타날 것이다(마 1:7). 그는 한 번에 한 곳에 계시는 것이다. 예를 들어 스가라는 "그 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골 동편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눅 14:4)라고 했다.

또한 성경에서도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님처럼 동시에 편재하시며 또한 국한되어 계신다. 성령님은 하나님 아버지 보좌 앞에 계신 분이이다(마 1:4, 4:5). 성령님 역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곳이라는 뜻에서 볼 때에 또한 국부적으로 계신다(골 2:22).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느냐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고전 6:19).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요 16:13).

2006년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 (롬 15:16)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행 9:5). 다메섹에서 빛 가운데 들린 이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핍박자 사울은 바울이 되었습니다. 이후 바울은 자신이 가진 모든 것들을 배설물(빌 3:8)로 여겨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전하였었습니다. 그러나 십자가를 전하는 바울의 삶은 고통과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자신의 몸은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스러웠습니다(고후 12:7). 또한 생계를 위해서 낮에는 장막 만드는 일을 해야 했으며(행 18:3), 복음을 전할 때마다 사람들의 반응은 냉담하였고, 핍박인이 있었습니다(고후 6:5). 그런데 순교하기 전 바울은 고백했습니다.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를 강건케 하심은"(딤후 4:17). 바울은 참으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며 복음을 전했던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었습니다.

금번에 2006년에 복음을 위해 헌신할 일꾼이 세워졌습니다. 어떤 세움을 입은 모든 일꾼들은 보혈의 은총을 깨닫고 평생 삼자가기를 전한 바울의 모습을 성령에 잘 새겨야 합니다. 사울을 바울로 변화시킨 보혈의 능력을 의지해야 합니다. 더욱 자신을 부인하며 자기 십자가를 지어야 합니다. 자신을 살려 온전히 회개하여 주님 앞에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러나기를 힘써야 합니다(딤후 2:15). 더불어 모든 성도님들은 이들이 신실한 일꾼(골 4:7, 복음의 일꾼(골 1:23), 신한 일꾼(딤후 4:6)이 되도록 간절히 기도를 해 주십시오.

(*2006년 일꾼 명단은 본지 5면을 참조하십시오.)

2005년 제3차 청지기 훈련

올해 실시되는 마지막 청지기 훈련입니다. 모든 성도님들은 지금부터 기도로 준비하십시오. 시간과 마음을 청지기 훈련에 맞추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일 시 : 10월 28일 금요일(저녁 7시)

대상 : 모든 성도

주 제 : 그리스도인의 자기부인 (마 26:39)

장 소 : 충현교회 본당

THE LORD STRENGTHENS ME

(16)At my first defense no one supported me, but all deserted me; may it not be counted against them. (17)But the Lord stood with me, and strengthened me, in order that through me the proclamation might be fully accomplished, and that all the Gentiles might hear; and I was delivered out of the lion's mouth. (18)The Lord will deliver me from every evil deed, and will bring me safely to His heavenly kingdom; to Him be the glory forever and ever. Amen. (2 Timothy 4:16-18)

Paul begins his charge to Timothy, "I solemnly charge you in the presence of God, and of Christ Jesus, who is to judge the living and the dead, and by His appearing and His kingdom..." (4:1). This confession clearly makes known Paul's fundamental beliefs. It shows the wonderful gift he found. Before finding his treasure, he trusted only the Law of Moses. He was a theologian, a Pharisee of the highest order. He considered the Israelites the only righteous people, God's chosen people. He persecuted all those who thought differently, especially Christians (Acts 9:4-5). He did not believe Jesus to be the Son of God, or that He resurrected. After he encountered Jesus, he became an apostle. He realized "all have sinned and fall short of the glory of God" (Rom. 3:23). He discovered God's salvation plan in Jesus Christ.

In today's message, Paul says, "At my first defense no one supported me, but all deserted me; may it not be counted against them" (v. 16). Prior to meeting the merciful Jesus, he took the offensive position; he persecuted Christians. Once meeting the Son of God, he became a defender of the faith, serving Jesus, not the Law. He found the secret, and believed the gospel. This gospel was truth, and Paul knew that God really sent His only begotten Son to save sinners from death and give them eternal life. He was able to declare, "For I am not ashamed of the gospel, for it is the power of God for salvation to everyone who believes, to the Jew first and also the Greek" (Rom. 1:16). Paul understood that God's grace came not through human effort or caution, but only through the death and resurrection of Jesus Christ to whoever believes. What is your confession? Is our church preaching and living the gospel message? Do our attitudes, courage, and experiences reveal Jesus? Are we truly aware of the amazing gift we found here on this earth?

Most people search for God in hopes of answering the questions of life. They examine different religious methods and principles, trying to find out how to get God's blessings. Their hearts desire a relationship with God, which is why they spend their money, time, and effort finding Him. They discipline themselves, and even use their own resources and talents trying to obtain the proper faith. When they think they have it, they want to tell others and show them what they have found. They want the perfect physical, spiritual, religious, and even political relationship with God. They take pride in their own spirit. They want others to perceive them as holy. Jesus told a parable to some people who trusted in themselves that they were righteous, "Two men went up into the temple to pray, one a Pharisee and the other a tax collector. The Pharisee stood and was praying this to himself: 'God, I thank You that I am not like other people: swindlers, unjust, adulterers,

or even like this tax collector. I fast twice a week; I pay tithes of all that I get.' But the tax collector, standing some distance away, was even unwilling to lift up his eyes to heaven, but was beating his breast, saying, 'God, be merciful to me, the sinner!'" (Lk. 18:10-13). Jesus responded, "I tell you, this man went to his house justified rather than the other; for everyone who exalts himself will be humbled, but he who humbles himself will be exalted" (Lk. 18:14).

Paul tells us how to get a relationship with God, unlike others, who still want a relationship with God. What is the secret? Jesus tells us, "If anyone wishes to come after Me, he must deny himself, and take up his cross and follow Me. For whoever wishes to save his life will lose it; but whoever loses his life for My sake will find it" (Mt. 16:24&25). Paul found this secret because he found the cross. He found the real gospel, but many people cannot find it. 2 Corinthians 4:3-6 says, "And even if our gospel is veiled, it is veiled to those who are perishing, in whose case the god of this world has blinded the minds of the unbelieving so that they might not see the light of the gospel of the glory of Christ, who is the image of God. For we do not preach ourselves but Christ Jesus as Lord, and ourselves as your bondservant for Jesus' sake. For God who said, 'Light shall shine out of darkness,' is the One who has shone in our hearts to give the Light of the knowledge of the glory of God in the face of Christ." Paul got this message. He saw God's grace in the blood of Jesus, not in our own efforts, but in our own weaknesses. We are by nature sinners. We need to receive mercy from God.

Coming back to today's Bible verses, Paul said, "But the Lord stood with me and strengthened me, so that through me the proclamation might be fully accomplished, and that all the Gentiles might hear; and I was rescued out of the lion's mouth" (v. 17). Paul denied himself all the time. He kept preaching the gospel, telling others that he was a sinner, a weak man, which is why the Lord delivered him from every evil deed, "The Lord will rescue me from every evil deed, and will bring me safely to His heavenly kingdom; to Him be the glory forever and ever. Amen" (v. 18). Paul had the secret, which was to deny himself all the time and allow nothing but the grace of God to penetrate his soul.

My dear friends, Jesus lives in your heart. He strengthens you, "For from Him and through Him and to Him are all things. To Him be the glory forever. Amen" (Rom. 11:36). Everything came from Jesus and everything will come back to Him, which is why we are able to enter the heavenly kingdom. If you rely on Him and deny yourself, you will be blessed, "Whoever believes in Him will not be disappointed" (Rom. 10:11). Paul found Jesus, only Jesus, who stood with him and strengthened him. That is Paul's confession, what is yours? 

주께서 나를 강건케 하심은

“⁽¹⁶⁾ 내가 처음 변명할 때에 나와 함께 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니
 저희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¹⁷⁾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를 강건케 하심은
 나로 말미암아 전도의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이방인으로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지웠느니라” ⁽¹⁸⁾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찌어다 아멘”
 (딤후 4:16-18)



김성관 목사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다음과 같이 엄하게 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과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의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라”(4:1). 이 고백 속에서 우리는 바울이 가지고 있는 믿음의 근본과 그가 발견한 놀라운 은총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게 됩니다. 이 보화를 발견하기 전까지 바울은 오직 모세의 율법만을 신봉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최고위층인 바리새인이자 율법학자였습니다. 바울은 이스라엘이야말로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 곧 유일하게 의로운 백성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자신과 생각이 다른 사람들,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습니다(행 9:4-5). 바울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않았고 주님의 부활도 믿지 않았습니다. 이런 그가 예수님을 만난 후 사도가 되었습니다. 그가 깨달은 사실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롬 3:23).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숨겨진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십자가를 깨달은 바울

오늘 본문 말씀에서 바울은 말합니다. “내가 처음 변명할 때에 나와 함께 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니 저희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16절). 자비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 그는 그리스도인들을 적대시하며 핍박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을 만난 후, 그는 율법이 아닌 예수님을 섬기는 종이 되었으며 이 믿음을 변론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바울은 감추어진 비밀을 깨달았고 복음을 믿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죽음에서 구원하시고 영생을 주시기 위해 정말로 당신의 독생자를 보내셨다는 진리를 깨달았습니다. 이 복음이야말로 진리였습니다. 이제 그는 이렇게 선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롬 1:16). 하나님의 은총은 인간의 노력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그것을 믿는 모든 자에게 임한다는 사실을 바울은 깨달았습니다. 여러분도 이와 같은 고백을 할 수 있습니까? 참으로 우리 교회는 복음의 메시지를 선포하며 여러분은 그에 합당하게 살고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 자세, 용기, 경험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고 있습니까? 진정으로 우리는 이 땅에서 발견한 이 놀라운 선물의 진가를 알고 있습니까?

자신을 낮추는 사람

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얻기 위해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축복을 얻기 위해 다양한 방법과 교리를 연구합니다. 그들은 하나님과 교제하고자 하는 열망으로 물질, 시간, 노력을 아낌없이 투자합니다. 자신을 수련하고, 온갖 자원과 재능을 총동원해서 높은 수준의 신앙으로 올라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일단 그 수준에 올라갔다 싶으면,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알리고 자신이 발견한 것들을 자랑하려고 합니다. 이들은 육체적, 영적, 종교적으로만이나라 정치적으로까지 완벽하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원합니다. 결국 이들은 자신의 영적 수준에 자부심을 가지며, 다른 사람들에게 거룩한 사람으로 인정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처럼 스스로 의롭다고 여기는 사람들을 향해 바요로 말씀하셨습니다. “두 사람이 기도할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가로되 하나님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 이다 나는 이례에 두 번씩 금식하고 또 소독의 십일조를 드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가로되 하나님여 불쌍히 여기옵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였느니라”(눅 18:10-13). 이 비유를 마치신 후 예수님께서 내리신 결론은 이렇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사람이 저보다 의롭다 하심을 받고 집에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눅 18:14).

자신이 죄인임을 깨달은 사람

바울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원하는 사람들에게 전혀 새로운 방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말하는 비밀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마 16:24, 25). 바울은 십자가 안에서 이 비밀을 발견했습니다. 그러나 참으로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바울이 깨달은 이 복음을 모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고린도후서 4:3-6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만일 우리 복음이 가려졌으면 말하는 자들에게 가려온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우리가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 된 것을 전파함이라 어두운 때에 빛이 비취려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취셨느니라.” 바울이 이 말씀의 비밀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속에서 하나님의 은총을 발견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노력으로 얻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할 때 깨달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본래부터 죄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합니다.

은총을 구하는 사람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를 강건케 하심은 나로 말미암아 전도의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이방인으로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지웠느니라”(17절). 그는 항상 자신을 부인하며 살았습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파하면서 자신은 죄인이며 낙한 사람이라고 고백했습니다. 바로 이런 고백 때문에 주님은 그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 내셨습니다.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 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찌어다 아멘”(18절). 바울은 이 비밀을 소유했습니다. 그는 날마다 자신을 부인하며, 오직 하나님의 은총만이 자신의 영혼에 바꾸기를 소망했습니다.

사망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여러분의 마음 속에 살아 계십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강건케 하십니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에 있으리라 아멘”(롬 11:36). 모든 것이 예수님으로부터 나왔고, 마침내는 그에게로 돌아갈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주님은 약속하셨습니다.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려니와”(롬 10:11). 이처럼 자신을 낮추는 신자는 천국에 들어가는 복을 받게 됩니다. 이처럼 바울은 능력이 예수님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오직 예수님만을 알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은총의 주님은 그의 곁에 서서 그를 강건케 하셨습니다.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를 강건케 하심은” 이것이 바울의 고백입니다. 여러분의 고백은 무엇입니까?

수요일부 예배 메시지

참 빛 (요 1:1-9)

참 빛은 생명의 움직임이다. 참 빛은 우리를 참된 생명, 평화의 자리로 이끈다. "어둠과 죽은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취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라 하니라" (눅 1:79). 외세가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많은 문제들을 안고 있다. 그런데 성도들이 어려움에 처할 때 기도하는 것은 무엇인가? 건강, 행복, 율바를 살만을 원하고 있지 않는가? "네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요 1:1). 말씀을 통해서 진리가 내려지고 있다. 그런데 많은 성도들은 세상적인 삶의 행태와 아름다운 살만을 원하고 있다. 요엘이 누렸던 축복만을 원하고 있다. 십자가 속에 담겨 있는 진리를 모른 채 성도들은 교회 안에서 열심히 하려고만 한다. 안 된다. 우리는 참 빛을 만나야 한다. 인류의 죄 때문에 구원의 역사는 시작되었다. 따라서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인제, 음성, 보혈과 관계를 맺어야 한다. 세상과 관계된 "우리의 문제"에서 벗어나 "우리의 죄"를 보아야 한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말씀으로 돌아가야 한다(요 3:19).

하나님은 우리의 빛이시다. 영원한 빛은 곧 하나님이다(사 60:19-20). 해, 달은 결국 우리의 생명을 위협하고 사라질 뿐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빛은 생명의 근원이 된다. "여호와와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시 27:1). 보이는 것이 중요하지 않다. 모든 자존심을 버려라.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라. "그 어디나 하늘과 땅과 땅과 땅이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찬 485장). 믿음의 자녀들은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인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돈, 권위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모든 생명의 근원이 주께 있기 때문이다(사 36:9).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 생명의 근원이 있다. "하나님은 빛이시라"(요일 1:5).

말씀이 우리의 빛이시다.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등이요 내 길에 빛이시라"(시 119:105). 우리의 행실을 깨끗케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말씀뿐이다(시 119:9). 모든 문제 해결의 열쇠는 말씀에 있다. 기도하며 말씀을 읽으라. 그때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시 119:130). 말씀이 나의 삶에 참 빛이 된다. "여호와와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와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도다"(시 119:30).

예수님은 우리의 빛이시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동행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요 1:14). 이것은 은총으로만 이해할 수 있다. 예수님은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요 8:12)고 말씀하셨다. 그러나 우리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무시한다. 그리고 우리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살 가운데 적용하는데 어려움을 느낀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그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눅 9:23).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 이처럼 영원을 향한 길은 좁은 길이다. 이 길을 가려면 참 빛이 있어야 한다. 그런데 많은 교회들이 예수님의 빛이신 참 빛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따르는 길만을 가르치고 있다. 속지 말자. 그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참 빛을 발견하자. 어둠의 그늘에 앉아 있는 우리는 고백해야 한다. "나는 죄인입니다 보혈의 은혜가 필요합니다"(찬 146장). 하나님은 말 한 마디로 우리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분이시다. 그런데 우리는 세상 것에 얽매어 세상의 행태만을 위해 기도하고 주님을 멸시하는 삶을 살고 있지 않는가?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빛이 되신다(요 9:5). 한 걸음씩 늘 인도하소서 이전에 방랑하게 지낼 때 고향하여 맏대로 고집하던 이 죄인 사하소서"(찬 429장). 우리의 가장 중요한 기도 제목은 "그리스도에게서 떠나지 않게 하소서"가 되어야 한다. 예수님께 모든 해답이 있다. 십자가 보혈로 우리 교회는 깨어 있어야 한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마 3:2). 다윗이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죽였을 때 나단 선지자는 다윗이 하나님께 범죄하였다고 지적하였다. 이처럼 모든 죄는 하나님과 관계가 있다. 우리는 십자가, 그리스도를 볼 때 죄, 온생을 깨달을 수 있다(요 1:9, 요 12:46). 갈릴리 어부 베드로는 놀라온 하나님의 축복을 말한다. "오직 너희는 백성인 죽으시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 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벧전 2:9).

교회는 우리의 빛이다. 그리스도의 빛이 교회에 비쳐졌다. 그리스도의 자녀가 되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마 5:14). 보혈의 은혜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특권을 주셨다. 창조주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라고 고백할 수 있다(마 5:16). 가는 곳마다 영원의 빛을 비추시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왔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롬 13:12). 우리는 그리스도의 도구, 빛의 자녀가 되었다(딤후 5:8, 살전 5:5). 빛의 자녀의 모습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어야 한다. 오직 주님의 말씀을 따르며 가는 곳마다 십자가를 증거해야 한다.

바울은 빛을 보았다. 완전히 변했다. 예수를 강하게 반대했던 바울이 다메섹에서 빛을 만났대(행 9:3-6). 이 빛을 통해서 바울은 자신을 포상했던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겼다. 그리고 참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사로잡혀 고백했다. "우리가 살기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라"(롬 14:8).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나"(갈 6:14).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쳤노라"(갈 6:17). 바울이 가졌던 참 빛이 우리의 생명에 있어야 한다. 우리의 가슴에 참 빛이 있다면 만나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빛을 전할 수 있다(찬 27:67).

세상의 전통, 율리가 아니라. 좁은 길, 빛의 길을 걸어야 한다. 영의 눈을 열라. 그리고 나의 죄를 살피고 마음에 내려놓고 회개하라. 세상의 근심된 일로 달레마에 빠지지 말라. 내 죄가 나의 달레마가 되어야 한다. 십자가, 하나님만이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다. "빛의 자녀가 되게 하소서, 주님의 것이 되게 하소서" 아멘.

우리 가족의 선교

2002년 콘이들 지장이(교도)를 K국으로 파송함으로써 우리 가정의 선교가 시작되었습니다. 그 해에 저는 회심한 때문에, 아이가 어려서 동등 인종적인 결론을 내리고 선교를 가지 못했습니다. 2003년엔 교구에서 점점 많은 분들이 선교를 다녀오시는 것을 보고도 지장이의 대학원사를 앞둔 상태에서 결단하지 못하다가 40일 아침 급식기도 후에 선교를 다녀올 수 있었습니다. 2004년에는 여름 휴가 동안 자란 선교를 다녀왔습니다.

이제 올해 2005년 2500명 이상의 단기 선교사를 파송한다는 이야기가 들리고 가슴이 많이 떨리고 기대감이 부풀었습니다. 2500명의 단기 선교사 속에 우리 은가족 네 삼구가 다 포함되어야 할 텐데, 주님과 얼굴을 마주하는 그 날 무엇보다도 켄케할 수 없는 중요한 일인데... 하버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주님은 우리 가족들이 믿음으로 선교를 갈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종교인 하나님 우리의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주님께서 부족한 저의 기도에도 응답하셔서 올해는 온 가족이 단기선교사로 쓰임받은 놀라운 역사가 있었습니다. 남편이 간 선교사는 남편의 사후자 많은 교류가 있는 나라에서 남편은 통역에 자신이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었다고 감사하셨습니다. 지장은 대학부 형과 누나들의 성령 충만한 모습에 함께 은혜 받았음을 감사했고, 작은 아이는 찬양가는 더욱 겸손하게 만드신 것과 언어를 철저하게 준비하지 못한 것을 회개하는 모습 등이 감사할 뿐입니다. 저 역시 지극히 연약한 모습으로 선교 사역을 온 것에 맞서음을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저 여염에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했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 가족에게 행하신 놀라운 일을, 그 십자가를 전한 것이 감사하고 기쁨 뿐임을 고백하며 기도를 드립니다.

금옥련 (집사, 7교구)

▲ 이번 주에 출발하는 선교팀

기간	팀	팀장	기간	팀	팀장
10월 10일(월) - 10월 17일(일)	아편찬대	김문선	10월 10일(월) - 10월 18일(화)	6교구(주)	김영주
10월 10일(월) - 10월 18일(화)	탁아부	정원근	10월 11일(화) - 10월 19일(수)	장로(2)	장선현
10월 10일(월) - 10월 18일(화)	유치부	오순도			

▲ 안재 사역 중인 선교팀

기간	팀	팀장	기간	팀	팀장
10월 3일(월) - 10월 9일(일)	초등부(주)	자규성	10월 4일(화) - 10월 13일(목)	1교구(주)	김신국
10월 3일(월) - 10월 11일(화)	4교구(주)	이종우	10월 4일(화) - 10월 13일(목)	장년(2부)	권오준
10월 3일(월) - 10월 11일(화)	8교구(주)	김종홍	10월 6일(목) - 10월 15일(토)	소년부(1)	홍성욱
10월 4일(화) - 10월 12일(수)	1교구(주)	구원식	10월 6일(목) - 10월 15일(토)	4교구(주)	류기명
10월 4일(화) - 10월 13일(목)	2교구(주)	장홍희			

▲ 지난 주에 도착한 선교팀

기간	팀	팀장	기간	팀	팀장
9월 28일(월) - 10월 4일(일)	7교구 4구역	장길남	9월 27일(화) - 10월 6일(목)	10교구(주)	남은희
9월 28일(월) - 10월 5일(수)	12교구 8구역	이병영	9월 28일(수) - 10월 7일(금)	장년부(1)	이종현
9월 28일(월) - 10월 5일(수)	16교구 4구역	홍형식	9월 29일(목) - 10월 8일(토)	17교구(주)	윤신미
9월 27일(화) - 10월 6일(목)	10교구(주)	김현배			

2006년도 일꾼명단

2006년,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복음의 일꾼들

당 회
서 기/노광현

부서기/김단용

예배위원회

예배위원장/이 훈

서 기/배순식

예배부/신상수(장)

성경부/배순식(장)

인내부/안동현(장)

헌금부/강철형(장)

지 도/안창덕

회 계/황의만

지 도/신상수(장)

지 도/최하은

지 도/김은철

지 도/전계식

지 도/황의만

김종선, 송두섭

차 경/신호옥, 이미재, 이인숙

차 경/최하은, 김은철, 전계식

차 경/최하은, 김은철, 전계식

차 경/최하은, 김은철, 전계식

차 경/최하은, 김은철, 전계식

차 경/최하은, 김은철, 전계식

찬양위원회

찬양위원장/노영환

서 기/이계인

지 도/고광환

회 계/유석민

성명	대장	지휘	부주	부대장	출무
김기열	김현식	김현식	오수이	이훈우/최근준	이도현
임미누엘	서순성	김남욱	김남욱	김남욱/이현진	이준모
오펜스트라	웨이메스대	랜순유아	랜순유아	랜순유아	유광우
황해방	윤민아	한경숙	한경숙	이세영/김호은	김성열
오펜스트라	임기문	임기문	임기문	임기문	최영욱
이현	김단용	김단용	김단용	류기영/방예수	황정석
오펜스트라	박경현	박경현	박경현	박경현	박경현
발광	전계식	김광수	구자익	이성식/이준기	김지훈
오펜스트라	박민석	박민석	박민석	박민석	이대현
호산나	양신자	이순은	김신성	이화자	이영숙
실로	이계인	서순성	임효선	권영우/이숙희	이영재
예배	구현철	김현철	오민성	이보신/김경희	이영재
오펜스트라	박영순	박영순	박영순	박영순	박영순
합동	김동욱	송재학	송재학	송재학	송재학
민도인	이민준	이민준	김지은	구영희	박국수

제1교육위원회

제1교육위원장/조종환

서 기/김형곤

지 도/이재형

회 계/석익성

지 도/이재형

지 도/이재형

지 도/이재형

지 도/이재형

지 도/이재형

지 도/이재형

지 도/이재형

지 도/이재형

지 도/이재형

지 도/이재형

지 도/이재형

지 도/이재형

지 도/이재형

지 도/이재형

지 도/이재형

지 도/이재형

지 도/이재형

지 도/이재형

지 도/이재형

지 도/이재형

지 도/이재형

지 도/이재형

지 도/이재형

지 도/이재형

지 도/이재형

지 도/이재형

지 도/이재형

지 도/이재형

지 도/이재형

지 도/이재형

지 도/이재형

지 도/이재형

지 도/이재형

지 도/이재형

지 도/이재형

지 도/이재형

지 도/이재형

지 도/이재형

지 도/이재형

지 도/이재형

지 도/이재형

지 도/이재형

지 도/이재형

지 도/이재형

지 도/이재형

지 도/이재형

지 도/이재형

지 도/이재형

지 도/이재형

지 도/이재형

지 도/이재형

지 도/이재형

선교위원회

선교위원장/전종필

서 기/임무현

의정부 지도/조규호

의정부 간사/김지훈, 김민철, 배지마, 박요엘

단기선교부장/전종필

단기선교부장/전종필

단기선교부장/전종필

단기선교부장/전종필

단기선교부장/전종필

단기선교부장/전종필

단기선교부장/전종필

단기선교부장/전종필

단기선교부장/전종필

단기선교부장/전종필

단기선교부장/전종필

단기선교부장/전종필

단기선교부장/전종필

단기선교부장/전종필

단기선교부장/전종필

단기선교부장/전종필

단기선교부장/전종필

단기선교부장/전종필

단기선교부장/전종필

단기선교부장/전종필

단기선교부장/전종필

단기선교부장/전종필

단기선교부장/전종필

단기선교부장/전종필

단기선교부장/전종필

단기선교부장/전종필

단기선교부장/전종필

단기선교부장/전종필

단기선교부장/전종필

단기선교부장/전종필

단기선교부장/전종필

단기선교부장/전종필

단기선교부장/전종필

단기선교부장/전종필

단기선교부장/전종필

단기선교부장/전종필

단기선교부장/전종필

단기선교부장/전종필

단기선교부장/전종필

단기선교부장/전종필

단기선교부장/전종필

단기선교부장/전종필

단기선교부장/전종필

단기선교부장/전종필

단기선교부장/전종필

단기선교부장/전종필

단기선교부장/전종필

단기선교부장/전종필

단기선교부장/전종필

단기선교부장/전종필

단기선교부장/전종필

단기선교부장/전종필

단기선교부장/전종필

단기선교부장/전종필

단기선교부장/전종필

단기선교부장/전종필

단기선교부장/전종필

단기선교부장/전종필

단기선교부장/전종필

단기선교부장/전종필

단기선교부장/전종필

단기선교부장/전종필

단기선교부장/전종필

단기선교부장/전종필

단기선교부장/전종필

단기선교부장/전종필

단기선교부장/전종필

단기선교부장/전종필

단기선교부장/전종필

단기선교부장/전종필

단기선교부장/전종필

단기선교부장/전종필

단기선교부장/전종필

단기선교부장/전종필

단기선교부장/전종필

단기선교부장/전종필

단기선교부장/전종필

단기선교부장/전종필

단기선교부장/전종필

단기선교부장/전종필

단기선교부장/전종필

단기선교부장/전종필

단기선교부장/전종필

단기선교부장/전종필

단기선교부장/전종필

지 도/정현민

회 계/김연근

회 계/김연근

회 계/김연근

회 계/김연근

회 계/김연근

회 계/김연근

회 계/김연근

회 계/김연근

회 계/김연근

회 계/김연근

회 계/김연근

회 계/김연근

회 계/김연근

회 계/김연근

회 계/김연근

회 계/김연근

회 계/김연근

회 계/김연근

회 계/김연근

회 계/김연근

회 계/김연근

회 계/김연근

회 계/김연근

회 계/김연근

회 계/김연근

회 계/김연근

회 계/김연근

회 계/김연근

회 계/김연근

회 계/김연근

회 계/김연근

회 계/김연근

회 계/김연근

회 계/김연근

회 계/김연근

회 계/김연근

회 계/김연근

회 계/김연근

회 계/김연근

회 계/김연근

회 계/김연근

회 계/김연근

회 계/김연근

회 계/김연근

회 계/김연근

회 계/김연근

회 계/김연근

회 계/김연근

회 계/김연근

회 계/김연근

회 계/김연근

회 계/김연근

회 계/김연근

회 계/김연근

회 계/김연근

회 계/김연근

회 계/김연근

회 계/김연근

회 계/김연근

회 계/김연근

회 계/김연근

회 계/김연근

회 계/김연근

회 계/김연근

회 계/김연근

회 계/김연근

회 계/김연근

회 계/김연근

회 계/김연근

회 계/김연근

회 계/김연근

회 계/김연근

회 계/김연근

회 계/김연근

회 계/김연근

회 계/김연근

회 계/김연근

회 계/김연근

회 계/김연근

회 계/김연근

회 계/김연근

회 계/김연근

회 계/김연근

회 계/김연근

회 계/김연근

회 계/김연근

회 계/김연근

회 계/김연근

회 계/김연근

감사위원회

감사위원장/박용규 서 기/장철환

회 계/함철주

회 계/함철주

회 계/함철주

회 계/함철주

회 계/함철주

회 계/함철주

회 계/함철주

회 계/함철주

회 계/함철주

회 계/함철주

회 계/함철주

회 계/함철주

회 계/함철주

회 계/함철주

회 계/함철주

회 계/함철주

회 계/함철주

회 계/함철주

회 계/함철주

회 계/함철주

회 계/함철주

회 계/함철주

회 계/함철주

회 계/함철주

회 계/함철주

회 계/함철주

회 계/함철주

회 계/함철주

회 계/함철주

회 계/함철주

회 계/함철주

회 계/함철주

회 계/함철주

회 계/함철주

회 계/함철주

회 계/함철주

회 계/함철주

회 계/함철주</

복음의 은총으로 연단받은 8주간

이제 닷새 후엔 내가 한 가정의 가장이 된다. 어릴 때부터 막연하게나마 생각해 오고 부모님께서 항상 기도해 주셨던 일이 닷새 후에 일어난다니 신기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매우 긴장된다. 정말 내가 잘 할 수 있을까?

본당을 오르내리는 게단다 붙어 있는 결혼준비교실 포스터를 보고 신청을 맡길 이고 있던 차에 가까운 사람들의 권고로 8주간의 결혼준비교실에 참여하게 되었다. 8주간의 교육을 통해서 이제 아내가 될 신부와 서로를 위해 그리고 우리가 함께 살아가야 할 날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다. 또 결혼을 준비하는 다른 커플들과 주님 안에서 십자가의 은혜를 나눌 수 있었다. 뒤돌아보면 인생의 중요한 시기에 말씀 안에서 모든 계획을 세우고 이를 위해 기도로 준비할 수 있었다는 것이 진정 주님의 은혜였다.

참으로 감사했던 것은 8주간의 교육 내용이 정말로 결혼 준비 과정 중에 부딪히던 문제였는데 배우자의 교육을 통해 결혼 준비 과정에서 생긴 갈등을 해결할 수 있었다. 무엇보다도 십자가의 복음을 확실히 깨달았고,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한 가정을 이루어 복음을 전해야 하는 중진들임을 거듭 깨달았다. 또한 세미한 부분까지 주님은 말씀으로 인도하셨다. 경제적인 문제로 갈등이 있던 주에는 신기하게도 기독교인의 경제관에 대한 수업이 있었고, 서로의 가족에 대한 상처가 있을 때에는 가족에 대한 교육이 있었다. 돌아보면 8주간의 교육 과정 하나하나가 결혼 준비 과정과 실제 결혼 생활에서 겪을 수 있는 문제들에 대한 주님의 가르침이었음이 분명하였다. 결혼할 사이이지만 막상 티놓고 얘기하기가 꺼려지는 문제들까지도 말씀을 의지해서 서로 간에 얘기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고 이러한 부분에 대해 서로의 깊은 생각을 알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정말로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었지만, 말씀대로 한 마음을 이룰 수 있는 주님의 자녀임을 새삼 깨달았다.

비슷한 신앙의 가정에서 자랐고, 직장의 선후배로 만났기에 이상적인 결혼으로만 생각했던 우리도 이렇게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고, 많은 갈등이 생길 수 있음을 깨달았다. 복음의 은총으로 연단받은 8주간이었다. "주님 우리의 가정이 말씀 위에 굳게 서도록 도우소서. 십자가의 은혜로 풍성하며 십자가를 전하는 가정 되게 하소서. 아멘"



박근기·신진영 (청년 2부)

"이들은 지난 9월 30일, 주님의 은총 속에 결혼하였다."

제3차 청지기 훈련을 기대하며

겸비한 마음과 회개의 심령으로

누가 이 시대의 청지기인가? 오직 하나님만을 주인으로 인정하고 사는 청지기의 삶을 누가 살고 있는가? 나는 과연 청지기다운가? 이 물음 앞에 나는 항상 고개를 들지 못했다.

청지기라고 살고 고백하는 일이 처음에는 쉬웠다. 그러나 성경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하셨다. 정말 내 삶을 하나님께 드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좇아 살았던 순간이 과연 얼마나 될까? 주님 앞에 드린 것이 없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청지기로 산다는 것은 삶에서 얼마나 많은 대가를 요구하는가! 모든 소유를 팔아 진주를 샀던 그 사람처럼 말이다. 믿음의 행동은 말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단순히 청지기로서의 삶을 살고 싶다.

내 육신과 영혼에 길이 스며들어 있는 게로름을 벗어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충성을 다하는 일꾼이 되고 싶다. 그것이 사실 얼마나 단순하고, 좁은 길인가. 그러나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로 사는 것과 주 안에서 수고한 일이 헛되지 않을 것이라고 하셨다.

너무나 연약하고 약한 나이지만 온 몸과 마음을 다해 주님을 찾을 때에 주께서 만나 주실 것이라고, 주님을 사랑할 때에 주님의 사랑을 입을 것이라고 약속하신 것을 의지하여 나아간다. 하루 아침에 주님의 온전한 청지기가 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래서 날마다 주님의 청지기로 훈련받기를 소망한다. 나의 삶을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내 삶을 사시기를 기도한다. 맑은 자의 일을 감당하는 청지기의 삶을 살기를 간절히 소망한다.

곧 청지기 훈련이 실시된다. 10월 28일 저녁! 어떠한 말씀으로 나를 깨뜨리고 도전하시며 내게 영의 양식을 주실까 기대된다. 말씀 되신 성령님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실 때에 나의 영이 힘을 얻고 건강하여질 것이기 때문이다. 겸비한 마음과 회개의 심령으로 목은 마음의 땅을 기경하고 청지기 훈련 때 주어질 말씀의 씨를 사모하며 다독 간절히 기다려야겠다.

"충성된 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에 열을 낼 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하느니라 (잠 25:13)."



박석호 (대학부)

새가족부를 수료하며

사망의 골짜기에서 헤매고 있을 때



♥ 제가 사망의 골짜기에서 헤매고 있을 때 믿음을 갖게 해 주신 주님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제 주님만 바라보며 성령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주인덕)

♥ 주님을 보지도 듣지도 못했던 제게 주님을 볼 수 있게 하시고 누구나 "너가 누구냐"라고 물어보면 "나는 주님의 자녀"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이 감사합니다. 주님의 도구로 온전히 쓰임받을 수 있길 원합니다. (정희영)

♥ 이 늦은 나이에 그래도 주님을 만나고 이렇게 새가족부를 수료하며 이 자리에 설 수 있다는 것이 감사할 뿐입니다. (조복훈)

♥ 주님께 감사합니다. 이 수료식까지 정말 많은 시간이 걸렸습니다. 저는 일찍 신앙 생활을 했으나 이렇게 아내의 신앙을 위해 같이 참석하면서 저도 새롭게 주님을 더 알게 된 것이 감사하고 제 아들이 부모의 신앙 생활의 모습을 보며 클 수 있다는 것이 감사합니다. (양희관·조현수 부부)

♥ 처음 새가족부에 올 때는 6개월을 새가족부에 출석한다는 것이 그리 어렵게 생각되지 않았습니. 그런데 11개월만에 이렇게 수료하고 보니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설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주님 정말 감사합니다. (나혜진)

♥ 6개월의 시간이 저에게는 정말 행복했습니다. 늘 새가족부 여배를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는데 그 은혜를 주신 주님께 감사합니다. 이제 청년 3부에 가서 주님의 사랑을 더 깨닫고 전하고 싶습니다. (장영숙)

♥ 말씀을 통해 나의 죄인 됨을 알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늘 말씀대로 살고 싶습니다. (이영근)

♥ 성경을 읽으며 제 마음 속에 계신 성령님이 제게 많은 평안으로 다가옵니다. (이유진)

♥ 주님 때문에 제 마음에 말할 수 없는 평안이 생겼고 그 평안으로 세상을 보는 제 눈이 달라짐을 느낍니다. (심근선)

♥ 주님을 알게 된 뒤로 아주 작은 거지말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저의 모든 생각과 마음을 아시는 그 분을 알게 되어 두려움이 없어졌습니다. (박기원)

♥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합니다. (김희준)

♥ 나의 연약함을 보게 되었습니다. 보이지 않지만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요. 더 열심히 신앙 생활 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문혜정)

♥ 교회에 오면 마음이 편하고 나아가 여건만 되면 교회에서 살고 싶은 마음까지 듭니다. 그러나 몸과 마음이 다른 나의 연약함을 봅니다. 더 많이 기도하고 남보다 전도하고 싶은 마음뿐입니다. 저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서광준)

(정리: 권집실)

교회 탐방 83 중등3부 면회회

믿음의 친구들! 영원한 친구들!

기도회가 깊어져서 약속시간보다 늦게 왔다는
아들을 맞는 마음은 즐거웠다. 왜냐하면 아들을
사모하고 있는 보혜의 은혜를 느낄 수 있었기 때문
이다. 또한, 복음으로 견고해진 교회와 주의 나라
가 이들 때문에 속이 뚫리기 때문이다. 길하는
것도 잘난 것도 없다고 수줍어하는 이들이 객역하
는 믿음의 순순함을 느껴보자.

중등3부 면회회는 어떤 것인가?

예수님을 가장 많이 사랑하는 학생들의 자치회
입니다. 회장, 부회장을 중심으로 20여명의 학생
들이 함께 기도하며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강성영 교사, 면회회장)

예배 전에 와서 예배를 준비하고, 신령한 예배
를 드릴 수 있도록 섬기고 있습니다. 특별히 수련
회, 시와 찬미의 밤 등 교회 행사 때 앞하는 도우미
들입니다. (김태연 학생, 면회부장)

중등 3부 면회회는 학생들을 그 누구보다 잘 알고, 위해서 기도
하고 앞장서서 십자가를 전하는 영적 공동체입니다.

(김정호 교사, 면회부원)

현재는 시·찬·복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기도해 주세요.

(유재우 학생)

*시·찬·복은? "시와 찬미의 밤"의 악곡을 매년 1회씩 중등부 학생
들이 연합으로 준비해 영광드리며 십자가를 전하는 복음의 전지이다.
금년에는 10월 29일(토)에 있을 예정입니다.

면회회를 통해서 받는 은혜들은?

아직은 어려서 사람적으로 온돌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흔들리지 않도록 영적인 믿음 공급받습니다. (신동은 학생)

친구들을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하게 되어서 예수님과 더욱 가까
워지는 것 같습니다. (이호찬 학생, 면회부원)

겉으로 볼 때 연약하 모습도 많이 보이지만, 그들을 쓰시고자 하



는 예수님의 열심을 볼 때마다 감사하고 있습니다. (강성영 교사)

교회에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지만 많은 친구들을 만날 수 있었고
함께 예배와 섬김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오유연 학생)

도래 친구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교회는 나오지만 중등3부에는 출석하지 않는 친구들이 많이 있
는데 조금만 일찍 일어나서 함께 와서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습니
다. (김민정 학생)

아침에 일어나서 힘들어서 기쁨 지각도 하지만 이 시간은 저에
게 제일 중요한 시간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만나고 말씀을 들
을 수 있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민성운 학생)

믿음 안에서 살아야만 합니다. "친구들아! 예수님을 함께 믿
자!" (이호찬 학생)

교회뿐만이 아니라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지키고 전도하는 삶이 되길 바랍니다. (오유연 학생)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하고 있는 기도제목은?

예수님을 따르는 믿음이 변치 않도록 기도하고 있
습니다. (신동은 학생)

저와 친구들을 볼 때 웃자람을 비롯해 걸치기에 많
이 신경을 씁니다. 이처럼 세상에 치우치지 않고 예
수님을 사랑하고 싶습니다. (김민정 학생)

가족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데, 너무나 마음이 아
픕니다. 우리 가족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을 수 있
도록 매일 기도하고 있습니다. (유재우 학생)

특별히 나누고 싶은 말은?

교회에서 만난 친구들은 평생친구이고 또, 천국에
서 영원히 만날 수 있는 친구들입니다. "친구들아! 주
일 오전 9시에 교육관 5층으로 와라, 예수님이 계시
니가 정말로 좋아" (김태연 학생)

집에서부터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
으면 합니다. 많은 부모님들은 교회에 다니면서도 예수님보다 공
부가 더 중요한 것처럼 말씀합니다. 그래서 교회 나와서 예배하고,
나아가 선교하는 것이 쉽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부모님들! 예수
님을 잘 믿고 싶습니다. 도와주세요." (민성운 학생)

요즘 학생들이 많이 바쁘지만 면회회 활동을 통해서 더욱 믿음
의 훈련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욱 적극적으로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기회가 생깁니다. 이곳에서 십자가를 전하는 용사로 거
듭날 소망합니다. (김정호 교사)

아직은 다들 어리지 않았지만 주님을 향한 이들의 마음은 뜨거웠
다. 복음을 위해서 기도하고 십자가의 길을 사모하고 있었다. 아방
나라에 그것도 포로로 잡혀갔던 다나엘과 세 명의 친구들이! 이들이
뜻을 강하여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기도하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갔
던 것처럼 중등 3부 면회회를 섬기는 이들의 겸손에도 보혜의 은적
이 남을 것이다.

(전진실)

다음주일 543장 찬 송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존슨 오트맨(Johnson Otman Jr., 1856-1922) 목사의 찬송으로 천국의 소망에 관한 찬양이다. 모든 성도
는 저 높은 곳 천국을 향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다. 만일 이 소망이 없다면 성도들은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다. 그러나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는 이 놀라운 소망이 분명히 있다. 그래서 저 높은 곳
을 향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다.

1절은 저 천국을 향한 믿음의 길을 우리가 날마다 쉬지 않고 걸어가기로 함을 찬양한다. 내 뜻과 정성을 모
두 모아서 날마다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갈아갈 명하신 믿음의 길을 걸어간다.

후렴은 그 믿음의 길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기를 찬양한다. 내 발을 붙잡아 주셔서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
의 자리, 빛과 사랑이 차고 넘치는 천국에 가게 하여 주실 것을 찬양한다.

2절은 우리가 사는 이 땅은 괴롭고 죄가 있는 곳이기 때문에 날마다 빛과 높은 저 천국을 바라보면 외심의 인개가 견고하고 근심의 모든
구름이 이기며 내 길을 찬양한다. 골로새서 3장1-2절은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
리심을 받았으면 위와 옛 것을 잊고서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늘에 앉아 계시는 나라 위에
있을 생각과 모든 것을 생각지 말라."고 말한다.

3절은 계속해서 이 세상에 살 때 우리가 저 소망의 천국을 바라보면 외심의 인개가 견고하고 근심의 모든
구름이 없어짐을 찬양하며 오직 저 천국에만 참된 소망이 있음을 말한다.

4절은 저 천국을 향한 믿음의 길은 분명 현하고 있다. 그러나 주님과 함께 이 길을 싸우며 나가는 것이며,
주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우리는 천국으로 인도된다.

5절은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실 때 우리는 천국에 우뚝 설 수 있으며, 그곳에서 영원한 복락을 누리며 영
원토록 주님을 찬양할 수 있게 된다.

모든 성도에게 천국 소망은 이 세상을 이길 힘을 준다. 주님과 함께 기도하면서 이 믿음의 길을 갈 때 주님
은 우리를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신다. 이 주님의 손을 잡고 저 높은 곳을 향한 믿음의 길을 힘있게 걷는 충
현의 성도가 되자.

(찬양위원회)

새·가·족·을·환·영·합·니·다

번호	성명	교구	소속부서	인도자	번호	성명	교구	소속부서	인도자
2715	사후석	19	외선부	자라달(19)	2733	김보혜	7	소망부	안태순(1)
2716	유한상	13	청년1부	유재원(15)	2734	오소영	7	청년3부	안태순(1)
2717	정미경	19	대학부	김선영(1)	2735	김현진	19	청년1부	이희선(1)
2718	조희정	19	청년1부	김태현(15)	2736	오소영	11	청년1부	이진규(9)
2719	김태만	8	청년3부	전현용(9)	2737	김정순	1	소망부	김정희(1)
2720	살미미	19	청년1부	김태현(17)	2738	최진영	19	청년1부	최성규(1)
2721	서민정	2	청년2부	박현희(17)	2739	정우석	19	청년1부	최성규(1)
2722	송현근	10	청년1부	박현희(17)	2740	노소영	2	청년1부	김두현(18)
2723	김정자	15	청년3부	김부영(15)	2741	김태산	8	청년1부	신문준(1)
2724	석성애	1	청년1부	이종순(9)	2742	이정순	16	청년2부	김종진(18)
2725	남재하	3	청년1부	박현희(19)	2743	유용배	19	외선부	김태현(9)
2726	서선영	19	대학부	이정연(1)	2744	최혜리	19	외선부	사세(19)
2727	박영자	2	청년2부	서영인(1)	2745	나미	19	외선부	고복희(15)
2728	윤광희	11	청년2부	정수영(9)	2746	신시호	19	외선부	나영애(19)
2729	정지영	19	청년1부	이종달(1)	2747	정우영	19	대학부	이지연(1)
2730	김기환	19	청년1부	이종달(1)	2748	김성진	6	청년2부	최정희(1)
2731	김영화	1	청년3부	이거원(17)	2749	고대선	19	청년1부	이정연(1)
2732	오태환	7	소망부	안태순(1)	2750	서현진	12	대학부	한영진(1)

* 초중교회와 한 가족이 되기를 원하시는 분은 본당 203호 새가족등록실로 오시기 바랍니다.*

교 회 소 식

별 세

1. 문봉식 씨 (우측자 성도의 모친, 이동희 성도의 장모, 13교구 방화2구역) / 9월 28일 별세, 30일 장례
2. 김정은 은퇴권사 (김재명 은퇴장로의 부인, 김형주·김관주·김은희 타교집사의 모친, 1교구 한서1구역) / 9월 30일 별세, 10월 3일 장례

결 혼

1. 김인찬 군 (이효선 집사의 아들, 4교구)와 정미화 양 (이금자 씨의 딸, 19교구) / 15일 (토) 15:00 세례하례식
충대 다이나믹홀(영동포구 신길동)

◆ "한 영혼을 주님의 품으로" (교회주변 전도의 날)

일시 : 12월(수) 오전 11:00 대상 : 전 교인 (교구별 여전도회 중심)
진행 : ① 수요일 예배 ② 교구별 영성훈련
③ 여전도회 월례회 ④ 교회주변 전도 실시

◆ 1교구 전도대상자 초청집회

일시 : 16일(다음주목) 오후 2:00-3:20 장소 : 교육관 201호

◆ 안수집사회 찬양연습

일시 : 11월 6일(주일)까지 매주 오후 3:30-4:30 장소 : 교육관 307호

2005년도 제5차 학습세례식 안내

날 짜	시 간	학 습 자	장 소	세례자, 개종자, 입교자	장 소	유아세례자	장 소
10월 9일 (오늘)	1교시 15:00-15:50	성경개요 (최종철 목사)	교육관 309호	교회론 (강 훈 목사)	교육관 304호		
	2교시 16:00-16:40	기독론 (김익환 목사)	교육관 309호	구원론 (이희석 목사)	교육관 304호		
10월 16일 (다음주일)	1교시 15:00-15:50	기독교개요 (임원덕 목사)	교육관 309호	세례론? (하종철 목사)	교육관 304호	유아세례관? (이정훈 목사)	교육관 301호
	2교시 16:00-16:40	문답	교구별 장소	문답	교구별 장소		
10월 23일 (주일)	찬양예배			성인 학습·세례식(찬양예배, 분당) 오후 4시 30분까지 일일 배당	유 아 세례식	(오후 3시, 갈릴렘) 오후 2시 30분까지 일일 배당	

이웃 주 새벽기도회 담당

10(월)	11(화)	12(수)	13(목)	14(금)	15(토)	16(주일)
설교자/기도자	고광환/전계식	김익환/양한일	강 훈/이정택	임원덕/이영환	이희석/이인원	최종철/김정연
						정중신/조옥자

예배담당 안내 (10/12-10/16)

날 짜 예 배	찬 양	사 회 기 도	설 교
10/12 수요일 I	주가 맡긴 모든 역사의 (호산나 찬양대)	류병복	김차금
10/12 수요일 II	우리 주님의 손길 (실로암 찬양대)	황진섭	이형숙
10/14 금요일 집회	11교구 / 소프라노 김혜선 / 소프라노 주영환	김태석	김성관 목사
10/16 주일 I	《예배 전 찬양》	이정훈	구재환
10/16 주일 II	교과서 속 우리가 지난 후 외 / 바이올린 유원주(임남우 오케스트라)	이희석	안동원
10/16 주일 III	예수가 가느라니시 외 / 소프라노 조수진(카타리엔 찬양대 솔로리스트)	안창덕	전계식
10/16 주일 IV	이 세상 끝날까지 외 / 소프라노 류승연(이연 찬양대 솔로리스트)	이종대	박철규
10/16 주일 V	인생의 신구주께 외 / 소프라노 구자은(멜랑지 찬양대 솔로리스트)	김영훈	김환기
10/16 주일찬양	안수집사 찬양단 / 핸드벨 콰이어 / 실로암 찬양대	이재영	조문수
			내어 쫓겨나고 돌아오다 (삼하 14:14) 김성관 목사

예배 및 집회 안내

구 분	시 간	장 소
주 일 예 배	I 오전 7:00	본 당
	II 오전 9:00	본 당
	III 오전 11:00 (수화, 외국어 동시통역 예배)	본 당
	IV 오후 1:00(국어 동시통역 예배)	본 당
	V 오후 3:00 (젊은이들이 드리는 예배)	본 당
찬양예배	오후 5:00	본 당
수요일예배	I 오전 11:00 II 오후 7:00	본 당
금요일집회	오후 7:00	본 당
새벽기도회	오전 5:00	본 당

기도원 안내

집 회	시 간	차 량
최요집회	오전 11:00	오전 10:00 분당 앞 출발
금요철야회	오후 10:30	금요일집회 후 분당 앞 출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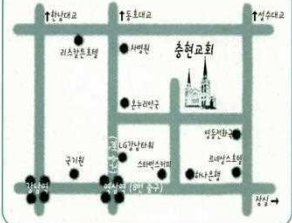
구 분	시 간	장 소	구 분	시 간	장 소
영 아 부	I 오전 9:00 II 오전 11:00	신교관 1층	청 년 2 부	오후 12:15	제2교육관 2층
유 아 부	오전 10:50	교육관 201호	청 년 1 부	오후 12:30	교육관 507호
유 지 부	오전 10:50	교육관 207호	장 년 3 부	오후 12:30	교육관 407호
유 년 부	오전 10:30	교육관 307호	소 망 부	오후 12:15	길 들리 홀
초 등 부	오전 10:30	교육관 407호	사 랑 부	오전 11:00	보치관 지하1층
소 년 부	오전 10:30	교육관 507호	예배다부	오전 9:00(하계) 오후 1:00(상계)	제2교육관 1층
중 등 1 부	오전 9:00	교육관 301호	타 학 부	오전 9:00-오후 2:00	교육관 110호
중 등 2 부	오전 9:00	교육관 401호	새가족양육부	오후 12:15	베 다 니 홀
중 등 3 부	오전 9:00	교육관 501호	충전현이전집	주간교육	교육관 107호
고 등 부	오전 11:00	제2교육관 4층	청년장제교회원	주간교육	충전복 지자
대 학 부	토, 오후 2:00	제2교육관 4층	국대교회원전교부	오전 11:00	아 멘 홀
청 년 1 부	토, 오후 2:00	제2교육관 4층			

오전 11:00 드리는 주일 1부 예배는 스리랑카어, 중국어, 한국어, 영어, 힌디어, 러시아어, 인도네시아어 등 동시 통역합니다.
Simultaneous translations in English, Chinese, Japanese and Sign Language are available at the Deven O'clock Worship Service, and Sri Lankan, Chinese, Mongolian, Russian, Hindi and Indonesian are also available at the One O'clock Worship Service.

10월 충현 기도의 향

- ① 위임목사님의 사역을 성령께서 통치하심으로써 십자가 복음의 통로로만 사하여 주시고, 영육 간의 강건함을 주소서.
- ② 10월 28일 금요일에 사에 있을 제3차 철거기 훈련을 통해서 충현의 모든 철거기 심령에 십자가를 깊이 새기며 자기를 부인하는 참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나게 하소서.
- ③ 충현교회의 단기선교사역을 통해서 복음의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더 깊이 알아가며 은혜 안에서 자라게 하소서.
- ④ 매월 둘째 주 수요일에 실시되는 교회주변 전도를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은혜를 주소서.
- ⑤ 모든 위원회에 속한 가문들이 주어진 본분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격려하고 함께 힘합으로써 하나님의 거룩한 전로 함께 지어지게 하소서.
- ⑥ 모든 새가족들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십자가 복음을 확신하며 믿음 안에서 자라게 하소서.
- ⑦ 5대 목회자의 하나인 이웃 사랑의 실천으로 세워진 충현복자원이 십자가 복음으로 운영되게 하소서.
- ⑧ 교회에 속한 재단유지·동산·복지를 십자가의 은혜로 관리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소서.

교회 오시는 길



성 · 기 · 는 · 본 · 들

■ 위임목사 김성관

■ 사무장

김익환	김은호	노광현	오진국	이병하
김영철	이훈	남진우	김영경	김종구
엄필성	최무길	이창호	차선득	김광남
안종욱	임원주	이갑재	전종훈	전종현
이정우	김단원	한승규	김영수	김환기
원종철	이형수	안동원	황찬민	김구형
최원길	이계인	박덕양	이태식	정태두
박종욱	권명욱	조종환	배훈식	김영남
이성호	최희재	노영환	박철규	정경진
신상수	고재승	강철형	김영은	이대욱
장철현	김승관	함철민	윤석민	장선현
안석원	김건근	김창국	김종선	이창식
김은철	전학대	김신국	전계식	김형국
장승규	진은배	서영식	구재환	송두섭

■ 부목사

이종대	정현민	박진기	류병복	김영훈
여국근	안창덕	나광영	정진호	김용덕
고광환	황원광	김인환	강 훈	임원덕
이희석	최종철	하종철	안치원	정중신
양재홍	이성진	조규호	최승규	이재영
이경준	이창수	김준희	윤수일	황진섭
장정영	이정훈	김태석	김성관	
■ 여전도사				
신동자	윤원숙	한영훈	김연식	홍순애
이옥주	김말자	안태순	김경연	조옥자
강덕림	최문실	전은희	김영순	김정자
이수경	김경희	이복순	류진희	한성임
임태주	강영미	옥미자		
■ 찬양감독 강구영				
■ 전일지킴이 서순성 김원섭				
■ 전일목회자 김소연 ■ 전일전주자 장영희				
■ 선 교 사 송요한				